

대행 스님

여러분의 마음 보배가 능히 이 세상을 다 쥐고도 남는다는 걸 알아야

(지난 호에 이어서)

여러분의 영혼은 의식으로 뭉쳐진 것이니 바로 그 영혼을 여러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좋고 나쁘고를 아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다스리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다스려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한생각의 도리를 실천한다면 우리 역사도 바꿔 놓을 수가 있고, 우리 삶도 경제도 기술도 지금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생각이 모든 것을 바꿔서 정말이지 신성하게, 땅도 넓어질 수 있고, 뺏어서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마음도 넓어질 수 있고 우리 살림살이도 풍족할 수 있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할 수가 있고 평등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 의리와 도리, 도의, 사랑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리를 알아서 인간의 자유를 얻는다면 우리는 이 세계를 손바닥 안에 넣고 연꽃의 향기를 두루 피울 것입니다. 인공위성을 띄우고 전파를 통해서 세계를 덮는다 할지라도 마음 한생각만은, 빛보다 더 빠른 이 마음 한생각만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면 깨친다, 안다 이런 걸 떠나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나 자체가 내 한마음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참자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자기를 내동댕이치고 저 바깥에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오. 아들을 잘되게 해 주시오. 남편을 잘되게 해 주시오. 부모를 잘되게 해 주시오.' 하다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나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못났든 잘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가 빠지면 기도 넣어 줄 것이고, 모든 점에서 다 그렇습니다. 병이 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파워를 일으키니까 세상만사가 다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이 파워가 일어나니까 다른 쪽도 파워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죠, 뭐.

요새 그런 것 잘 보시죠? 그런 것도 다 마음, 마음,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면 내면세계 그 의식들의 마음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지배인을 따라 줍니다. 여러분은 실험을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실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의 골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의 조사들, 천백억화신들, 일체제불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면서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집에 전화를 놔야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보배에 의해서 내가 수억겁을 거쳐 온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미래가, 바로 정신세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차 지나간 뒤에 차를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타고 다닐 겁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편하지만 버스 타는 사람은 차를 놓치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고거 하나로만 비유해 봐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날까지 추운 거를 춥다고 해 본 일도 없고 더운 거를 덥다고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계절도 사계절 나름입니다. 여름이라고 고정되게 항상 장마가 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가는 것만도 아니고, 그런 장마도 없습니다. 괜찮았다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가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름이 아주 무덥기도 하고 덜 덥기도 하고, 겨울이 덜 추울 수도 있고 더 추울 수도 있고,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북극 남극이 여러분의 입과 직장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잡수시죠? 잡숫고 그 잡수신 게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잡숫고도 그거를 붙들어 놓고는 그냥 애를 쓰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냥 놔뒀으면 소화가 돼서 그냥 나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보다 돈 쓰기가 더 어렵고, 어떠한 것이 사는 건지 그 맛을 모른다면 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내 형상을 해 놓고 빌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시주를 하고 그러는 것이 공덕이 크게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깨쳐서, 너희들의 물리가 터져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나가라. 유의 세계 무의 세계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마음, 마음,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죠. 마음 병을 고쳐 주시려고 49년을 설하셨고, 마음 병을 고쳐 주려고 한 사람이 있어도, 거지가 앉아 있어도 설하셨습니다. 이 허공에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나무 한 그루, 이파리 하나가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생 아닌 것이 어디 있겠으며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겠죠. 여러분, 바깥에서 기복으로만 나가는 것을 지금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패를 모셔 놓고 빌고 있습니다.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부모든지 다, 죽으면 위패에다가 붙여서 그냥 꽉꽉 묶어 놓죠? 그런 것부터 좀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아니, 잡숫는 것도 그냥 있지 않은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좀 깨이고 깨여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말하고 금방 돌아가고 금방 돌아가고, 걸어왔는데 발자취가 하나도 없고, 가도 간 것이 없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발과 종점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게 즉, 끝 간 데 없는 한마음으로서 불바퀴 돌아가듯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추저분하게 생각해서 음식물이나 놓고 빌고 절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치고 마음이 폭넓고 지혜로우며 물리가 터지게끔 자기가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앉는 것도 선이요 서는 것도 선이요 눕는 것도 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참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요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인연에 따라서 또 만날는지 모르니까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가 없으니 인연이라는 말은 해서 뭘 합니까? '한마음!' 그러면 됐지요,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인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만나면 인연이요, 말하면 인연이요, 그저 아버지 만나면 자식이 되고 또 자식 만나면 아버지가 되고, 부인 만나면 남편이 되고 온통 그렇게 바꾸어지는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지요. 이름이 없는 게 부처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입니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여러분한테 설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야! 죽는 것이 사는 거냐, 사는 것이 사는 거냐?" 하고 물으셨대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대답 안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게 몸뚱이로 봐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요. 마음은 영원한 거지만, 영원한 그 주장자가 없으면 도로 환

☞ 22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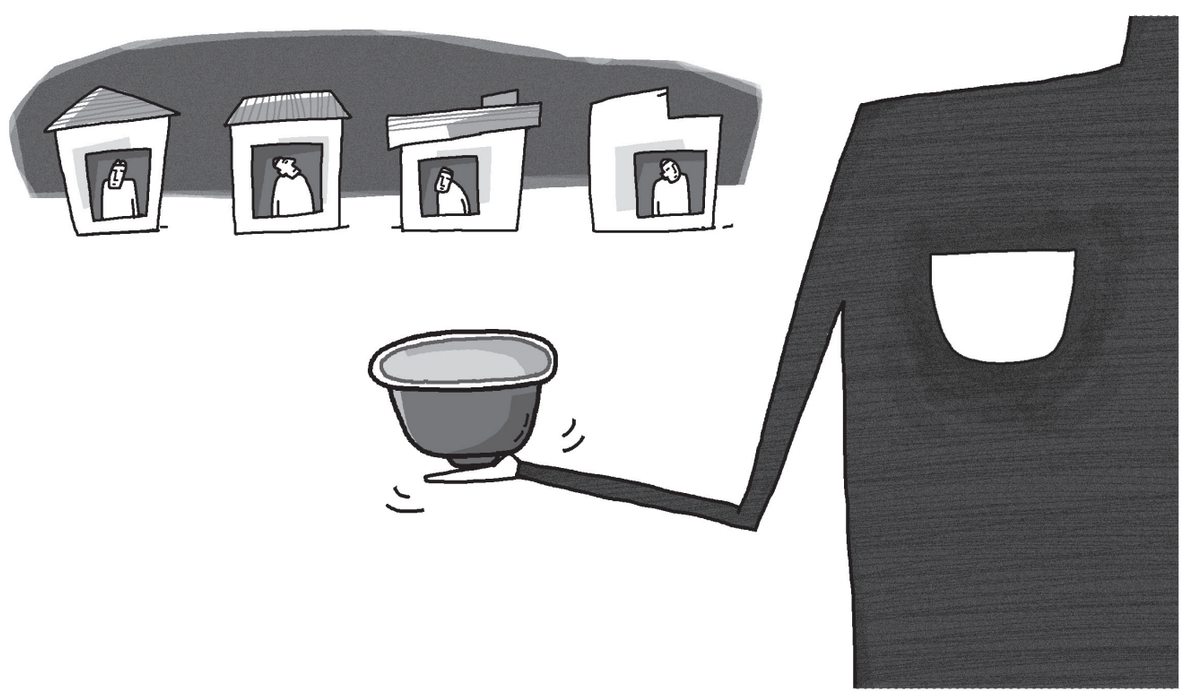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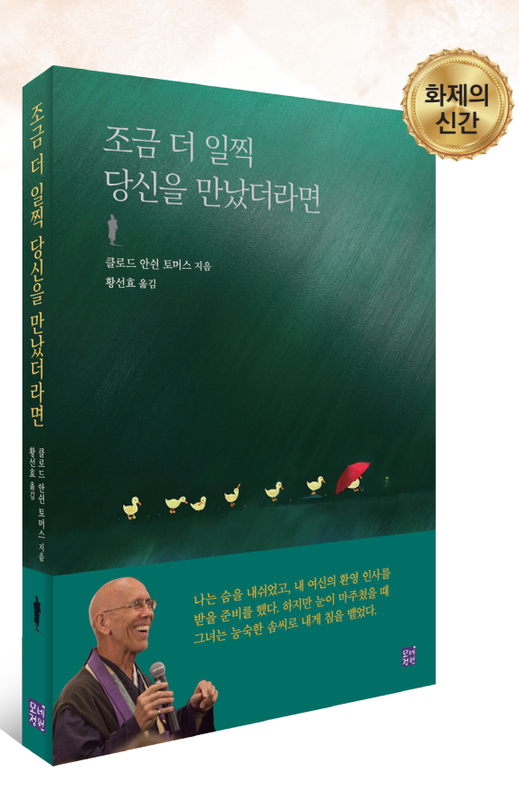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